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多名と思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59호 [루계 제24772호] 주제103(2014)년 12월 25일(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 하 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시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 동지, 김정각동지, 서홍찬동지, 박영식동지, 렴철성동지, 조경철 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력사적인 서한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였으며 오늘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 애 하 는 최 고 사 령 관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 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 이 러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령적인 서한에서 지난 기간 인민군대의 후방일군들이 군 인생활개선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다 고 하시면서 자기들에게 미덥고미더운 우리 당의 영원한 군수관, 사회주의수 호전의 전초병들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 애 하 는 최 고 사 령 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은 최고사령관과 마음 도 뜻도 함께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인들을 위한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후방일군들의 수고를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014년을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 변이 나는 해로 만들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후방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대회참가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후방사업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 며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후방 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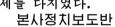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 옹위!》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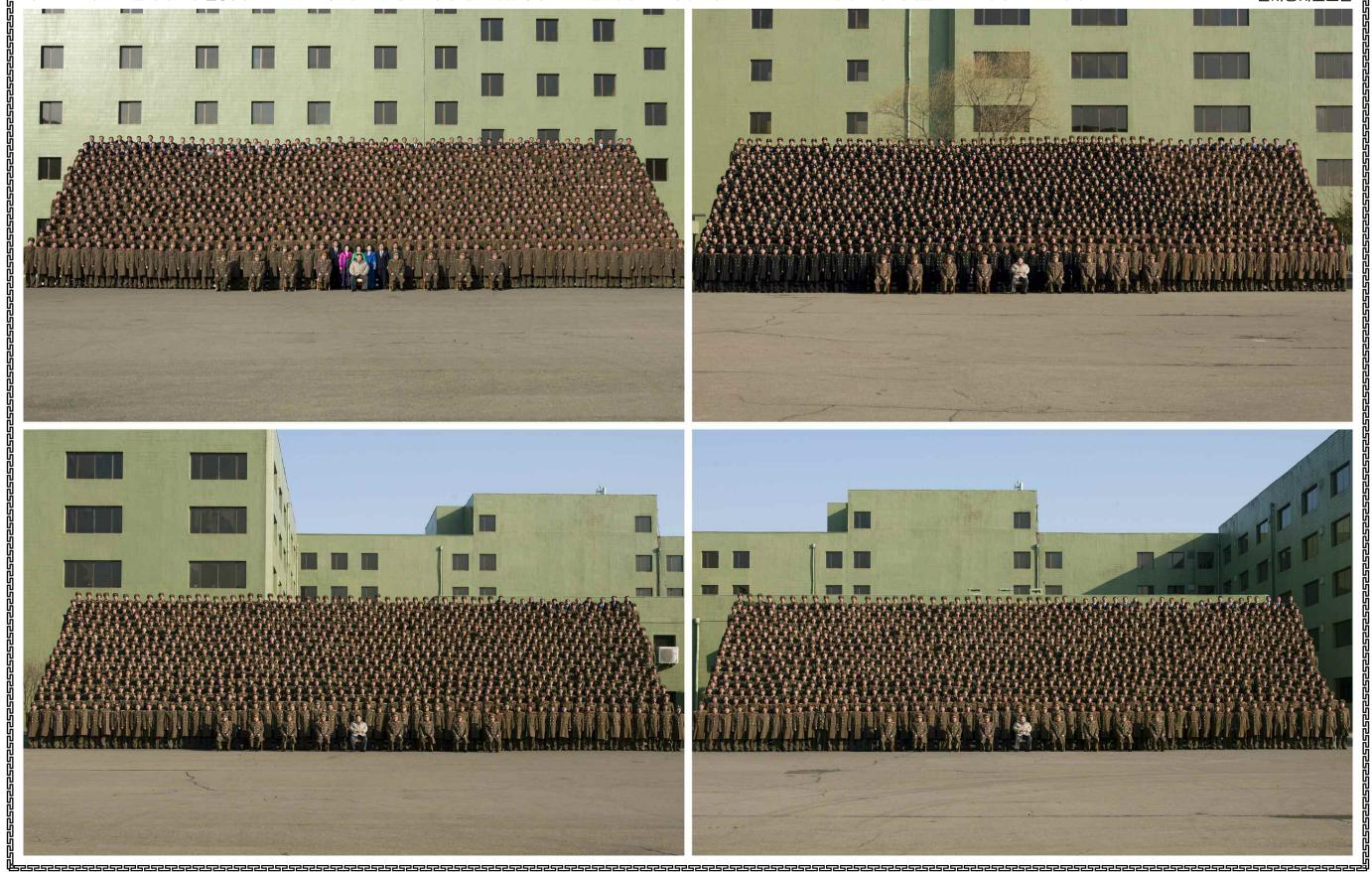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 애 하 는 최 고 사 령 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후방일 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 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후방일군들이 항일유격대 군수판들처럼 죽어도 혁 명신념 버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과 군인들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진정한 전우, 참된 동지가 되여 병사 사랑의 길을 꿋꿋이 이어나감으로써 사랑하는 우리의 병사들에게 하루빨 리 더 좋고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승리의 신심드높이 총돌격전을 벌려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 을 이룩하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군인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걸음걸음 애로와 난관이 막아나서면 걸음걸음 풀어나감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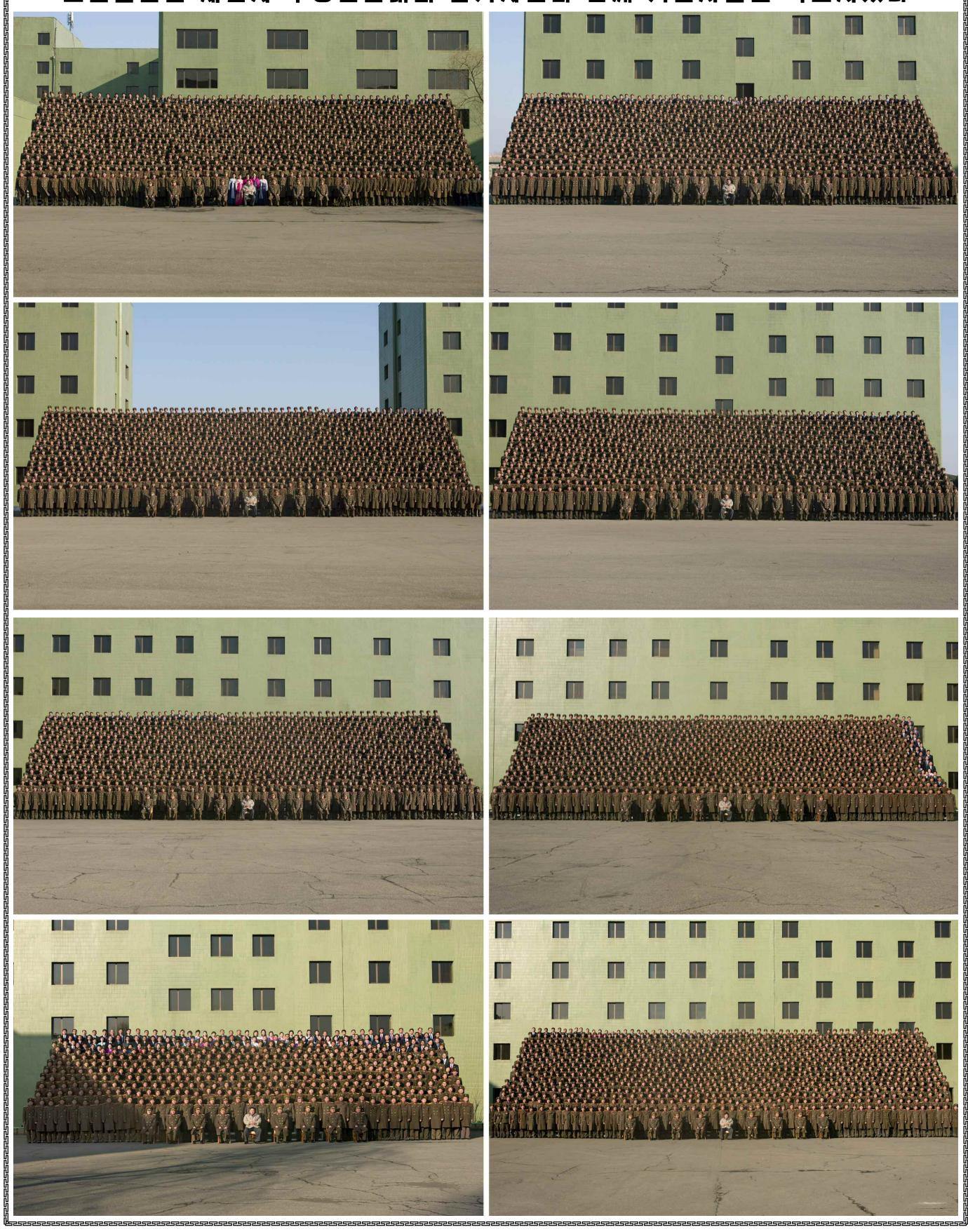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에 충정 으로 보답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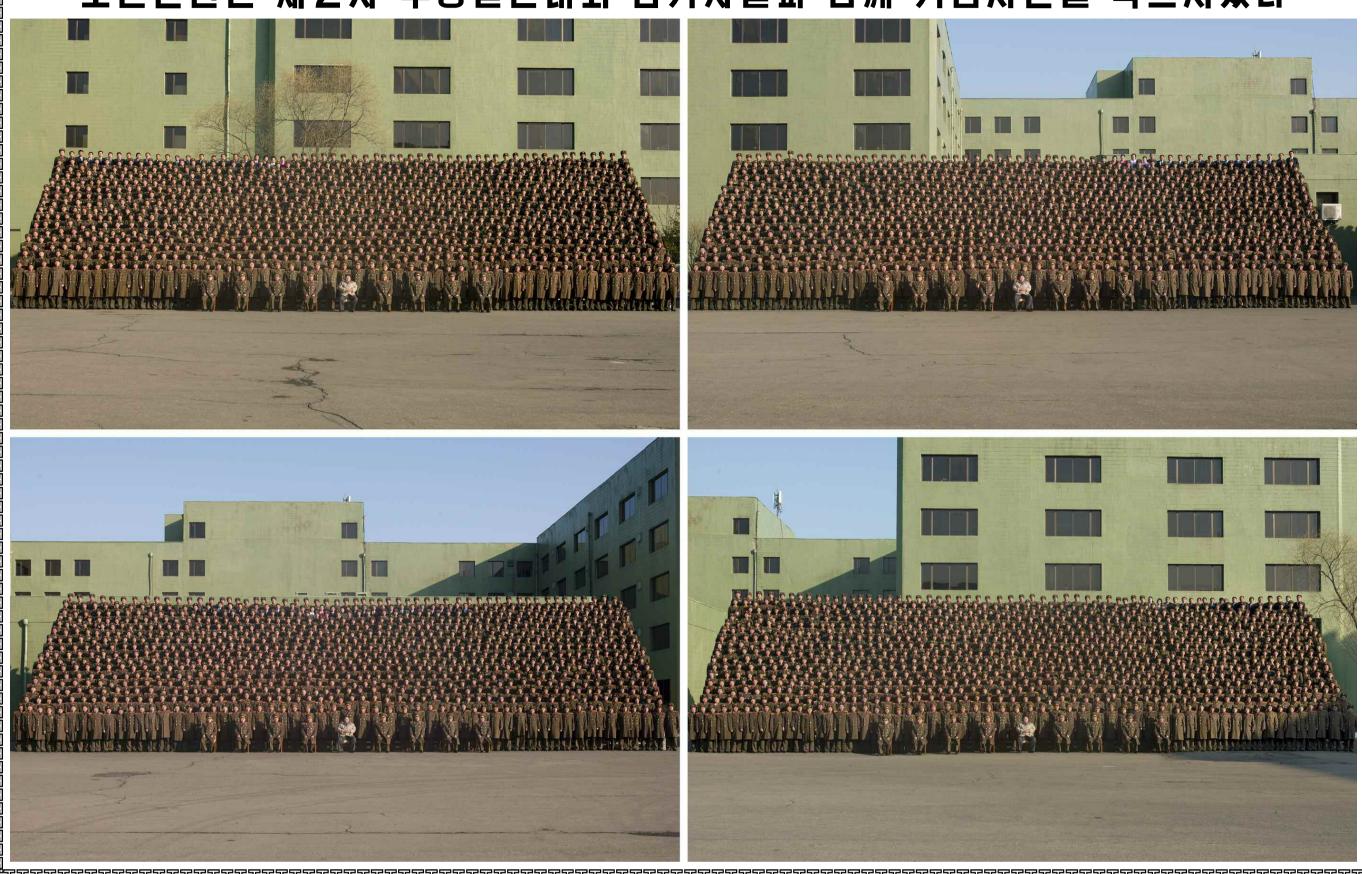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 정 동 전 령 인 CH 0 CH 부 Пŀ 혀 통 호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심심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 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여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편지를 24일 개성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가 김성재 김대중평화쎈터 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각각 정중히 전달하였다.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에게

위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녀사께서 정성들인 추모화환과 위로의 마음을 담은 조의문을 보내온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녀사께서 3년전 국상때 아들, 며느리들을 데리고 평양을 방문하여 국방위원장동지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한데 이어 3년상에 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온것은 국방위원장동지에 대한 고결한 의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께서는 생전에 녀사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온데 대해 자주 회고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선대수뇌분들의 숭고한 통일의지와 필생의 위업을 받들어 민족의 통일숙원을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다음해 좋은 계절에 녀사께서 꼭 평양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류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룹 장 회 혅 선

위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회장선생이 정성껏 준비한 추모화환과 심심한 애도의 조의 문을 보내온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이 청천벽력의 국상을 당하고 슬픔에 잠겨있을 때 선생은 국방위원장동지의 령전을 찾아 조의를 표시 하였습니다.

선생은 이번 3년상에 지성어린 추모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옴으로써 우리 국방위원장동지와 정주영 전 명예회장,

정몽헌 전 회장들과 맺은 깊은 인연을 귀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가려는 마음을 뜨겁게 표시하였습니다.

정주영,정몽헌선생들이 민족파 통일을 위한 길에 남긴 애국적소행을 온 겨레는 잊지 않을것입니다. 현정은회장선생의 사업에서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회장선생이 평양을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김

주체103(2014)년 12월 18일

화 전

주체103(2014)년 12월 18일

골

서거 3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이루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돐,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돐에 즈음하여 김정일화전시 회가 15일 몽골 울란바따르에

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 와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활짝 핀 불멸의 꽃 김정일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들로 하여 전시회장은 황홀경을

전시회에는 몽골민족민 주당, 몽골김정일화협회, 몽골 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

였다. 못골민족민주당 총비서는 다

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이신 김정일령도자께 삼가 경의 를 드린다.

한추위속에서도 김정일화가

김정일령도자를 흠모하는 몽골 위해 바치시였다. 인민의 숭고한 마음이 이 불멸

의 꽃에 어려있기때문이다.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선을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최후승 강위력한 나라로 건설하신 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김정일령도자의 고귀한 업적은 있다.

길이 빛날것이다. 회 성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

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평생

몽 골 땅 에 만 발 한 것 은 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강력한 정치, 군사적토대우에서 오늘 조선의 당과 군대,인민을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몽골조선친선협회 지도리사 그이께 충정다해가는 일심단결 된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조선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이룩 다. 위대 한 김정일령도자의 할것이다.

령도자, 절세 미 손실이였다.

날과 날이 숭엄히 흐르는 잊 지 못할 12월에 걸출한 령도자 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 적인류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더욱 뜨겁게 분출

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 과 각계 인사들은 전문과 편지

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피력하고있다.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선군 로숙한 령도자이시였다. 사상을 발전시키시고 빛나게 구

현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강국 을 일떠세우시였다.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존함 과 불멸의 업적은 네팔인민을

비롯한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김정일동지와 같으신 최고사령관은 일찌기 없었다고 하 면서 전 쏘련국방상은 이렇게 계속 하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동지 의 유훈을 받드시여 조선민주주 서거는 인류자주위업의 가장 큰 의인민공화국을 사회주의강국

으로 전변시키신 천재적이며

김정일동지는 모든 군인들의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대로이신 김정일동지는 이민위천을 좌우

명으로 삼으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 치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 이시며 열렬한 애국자이시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였다. 장은 김정일동지의 생애와 혁명 업적은 오늘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 민들을 고무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께서 안겨주신 자주의 신념이 있어 모든 난판과 시련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사회주의와 존엄을 수호할수 있었다. 김정일동지의 그이께서는 자신을 위하여서는 존함은 조선인민이 걸어온 혁명 투쟁승리의 상징이며 그이의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 영상은 진보적인민들의 가슴속 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지휘부에 높이 모시였다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제526대 련합부대 지휘부에 높이 모시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신것 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태양의 위업을 총대로 끝까 지 완성해나갈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불변 의 신념과 의지의 숭고한 정화이다.

위 대 한 수 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식이 24일에 진행 되였다.

제막식장은 선군의 기치높 이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 승의 전투대오,주체혁명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 해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으 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 이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 세 ! » , 《 경 애 하 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위대한 김일성동지 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 이 빛내여나가자!》라는 구호 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량옆에는 조선 하였다. 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 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기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 진정되였다. 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계양대들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 국기가 나붓기고있었다.

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 들, 대련합부대 장병들, 종업원들, 군인가족 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기여한 단위 일 군들과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을 군대 의 책임일군들과 대련합부대 지휘성원들이

> 제막포가 벗겨지자 선군조선의 승리와 동상이 찬란한 빛을 뿌리였다.

순간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끓어넘치는 다함없는 그리움과 고결한 충정심의 분출 제막식에는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 인양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 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제막식장상공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조선로동당 국방위원회의 공동명의와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련합부대의 각급 부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 든 단위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형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우러려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참가자들은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차수 황병서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군력강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 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서 련전쾌승의 개가를 높이 올리고있는 격 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 제막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백두산혁명강군의 강화발전과 선군조선 의 찬란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준 력사 의 날인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그 토록 바라고바라던 념원이 성취된 이 시각 우리모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영상을 우러르며 부대에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고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나날 몸소 대련합 부대를 조직해주시 고 항일혁명투사들 을 지휘성원들로 파견해주시였으며 부대를 그 어떤 강 적과 맞서 싸워도 승리만을 떨치는 일당백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켜주시

총포탄이 우박치 는 최전선에 위치 한 부대지휘부를 생애의 마지막시기 까지 수십차레나 부대를 찾아주시면 서 전투력강화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병실의 수 수한 침대의자에

나누시며 친어버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사랑과 정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최고사령 관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며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 위대한 수령님과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언 같이 지키는 무쇠방괘가 되여야 한다. 는 대련합부대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고 하시면서 모든 초소를 난공불락의 요새 로 전변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궂은날, 마른날 가 림이 없이 부대장병들을 찾고 또 찾으시여 싸움준비를 우리 식으로 완성할수 있는 작전전술적명안들을 가르쳐주시고 초소들 과 구분대들의 전기, 식생활문제를 풀어 주시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

최전방초소를 찾으시여 병사들에게 필승 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이곳 부대에 가보아야 하 겠다고 몇번이고 외우시며 부대장병들을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 은 그 은정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 게 울려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병사들에게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전선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면 서 부대를 강위력한 무적의 전투대오로 강 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 의 업적은 주체의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 어 길이 전해가려는 부대장병들의 간절한 념원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의 숭고한 뜻을 찾으신 그날부터 높이 받들고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훌 륭히 형상하였으며 부대안의 장병들,수많 은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군인가족들, 인민들은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티없이 맑 고 깨끗한 지성을 바치였다.

연설자는 부대안의 전체 장병들의 한결 같은 마음을 담아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앉으시여 병사들과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허물없이 이야기도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교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

였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군력강화의 최전성 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 운 감사를 드리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항일혁 명선렬들의 맥동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죽어도 혁명신 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 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 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백두산대국을 기어이 일뗘 세워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 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그 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장군님께서 령도하여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 을 끝까지 걸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 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여 야 합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전사,제자답게 대원수님들 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렇게 계속하였다.

모든 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여 김일성,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래일도, 우리모두의 참된 삶도 있다는 철리를 가 슴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철옹성

부대 안에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한방향으 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아가는 혁명적령군 체계와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부대의 정 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 양, 도덕교양을 참신하게 벌려 모든 장병 들을 신념의 강자, 도덕의 강자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한 백절불굴의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켜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빨찌산식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장병들을 진짜배기싸움군, 백발백중의 명 사수, 명포수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 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부대강 화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오중흡7련 대칭호쟁취운동을 군사정치사업의 총적과 업으로 틀어쥐고 그 체계안에서 근위부대 운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부대를 오늘의 김정은빨찌산, 무적필승의 근위부대로 만 들어야 한다.

연설자는 백두산대국의 운명이시며 찬란한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대원수님들 따라 이어온 선군혁명 위업이 빛나게 완수되는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 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동상들을 돌아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 탄 생 김 정 숙 동 지 의 음 하 여 녀성영웅 돐 에 97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군 책 임 일 금 수 산 태 양 궁 전 을 경 의 표 시 찾 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을 맞으며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24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영남동지, 최룡해동지를 비 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 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 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일 성 대 원 수 님 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 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 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 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앞에 놓여있 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 당 중앙군사위원회,조선민주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 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 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주시고 선군조선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절세위인들 의 립상을 우려려 승교한 경의 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 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울음 홀,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 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 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 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 일 성 대 원 수 님 께 서 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체의 건군사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여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

었다.

와 정 <u>O</u> 찾

인민군장병 각계층 모 의 학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 며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 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으로는 다함없는 경모 의 정에 넘친 군중들의 물결이 뜨겁게 굽이쳤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 을 찾아 조선인민군, 조선인 민내무군 장병들과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청소년 학생들의 대오가 끌없이 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의 탄생 97돐을 맞으며 전국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회령

고향집을 방문하고 각지 혁명

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답사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청

신파혁명사적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과 어머님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

23일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

에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회령고향집에로의 출발모임을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

장의 발언에 이어 토론들이 있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유서깊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돌이켜보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어머님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꿋꿋이 이어나갈데 대하여

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진시, 회령시, 랑림혁명전적지,

였다.

가지였다.

었다.

조선로동당 제 1 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판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

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 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 내 각급 기관,기업소,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

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 여져있었다. 참 가 자 들 은 천출위인들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

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한

빛나는 년대기들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흠모의 물결은 김일성군사 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 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

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 이 진정되였다. 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과 꽃바구니들의 댕기에 태양상들에도 끊임없이 이어 졌다.

혁명전적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꽃송이들 이 진정되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 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 리를 앞당겨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사 릉 혁

김정숙동지의 환 정 화 짓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7돐에 즈음하여 24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그이의 동상에 화환이 진정되 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동상앞에 놓여있 진정되였다.

최룡해동지, 현영철동지, 김 평해동지, 오수용동지와 내각부 육, 보건, 출판기관, 조선소년단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 부 대표가 경모의 정을 표시 총리들,우당위원장,당,무력, 전국련합단체,평양시내 당,정 생애를 돌이켜보며 묵상하 하였다.

였다.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화환진정에 참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권기관, 공장의 명의로 된 화환 들이 진정되였다.

화 환 들 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 라!》라는 글발이 씌여져있 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자신의 고귀한 인민무력부, 근로단체, 성, 중 놀지 않는 백두산대국의 명맥 앙기판, 조선인민군 부대, 교 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항일의

였다.

김정숙동지

조선인반학명군 지회관

1931년 9월 식명에 참가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투철 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백절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 불멸의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한편 이날 대성산혁명 삶을 빛내이시였으며 억년 드 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투쟁정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뜨거운 동지애를 적극 따라배워야 할것이라고 강 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 이 깃들어있는 해방동숙소 등 청진시안의 혁명사적지들을 돌 아보았다.

24일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 은 회령고향집을 방문하였다.

오산덕기슭의 추녀낮은 고향집 을 찾은 그들은 어머님께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열렬한 혁명가로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과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회령혁명사적관과 망양나루터를 돌아보았다.

이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서 은 회령고향집에로의 출발을 진행된 전국녀맹일군들과 앞둔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녀맹원들의 결의모임에서는 어머님께서 마련하신 수령결사 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굳건히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표모임,혁명가요대렬합창경연 이어나가며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았다.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선군 시대 조선녀성들의 힘찬 맹세 가 울려나왔다.

녀 맹 원 들 은 위 대 한 이끌어주시던 객주집,녀성 그들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 김일성동지 께서와 항일의 들을 나라찾는 싸움에로 불 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들이 위대한 친위전사이신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국 러일으키신 물레방아간에서 가다듬었다.

각 지 에 서

이하기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기 위해 여러차례 나오시여 정치군사활동을 벌리 신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 하였다.

그들은 상단산림시비밀근거 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장군께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절세위인들을 칭송한 구호문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 아보았다.

자강도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랑림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그들은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을 받들고 백두산녀장군께서 인산지구에 나오시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에 새기

어머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책임자들과 지하혁 명조직책임자들의 모임을 지도 하신 두릉봉골짜기의 귀틀집에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

였다.

그들은 백두산녀장군께서 야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애국 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 심을 심어주신 진흥야학방과 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함경북도안의 녀맹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반일투쟁에로 령도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공 연 들 로

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 오래도록 발걸음을 뗴지 못 하였다.

>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은 함경남도안의 녀맹일군들과 녀 맹원들은 전적지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대동야학과 구호나무 등을 돌아보면서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정속에 되새기였다.

> 신파혁명사적지를 찾은 량강 도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 들은 백두산녀장군께서 국내 지하공작의 나날 혁명활동의 거점으로 리용하신 광선사진 판, 석전양복점을 비롯한 여러 굣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 았다.

> 전국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 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 혁명 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판 의 나날 노래모임과 위대성발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도 진행하였다.

> 그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

지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H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탄생 97돐에 즈음하여 김정숙군, 회령시, 김정숙해군 대 학, 김정숙종합군판학교에 모신 어머님의 동상에 24일 꽃 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진정에는 지방당, 정권기관,근로단체일군들, 들이 진정되였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당,정권기관,근로단체,조선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지방 리라!》라는 글발이 씌여져있 인사를 드리였다.

참 가 자 들 은 위 대 한 김일성대원수님께 무한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충직하시고 조국과 민족의 륭성 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 바쳐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시였으며 선군혁명위업의 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 김정숙동지를 경모하여 삼가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념원을 꽃피우는 길에 모든것을

군 민 합 δH 立 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경축 조선인민 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24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되 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천만군민의 격정과 환희가 공연장소에 차넘 쳤다.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 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성, 중앙기판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 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 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 고있는 해외동포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판부부들이 여기에 초대되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위대한 선군태양을 우러러 터치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분출 인양 합창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으로 시작된 공연무 대에는 남성3중창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남성독창과 무용 《붉은 철령》, 녀성대중창 《그리워》, 가야금병창과 남성

방창 《비날론 삼천리》, 《우리네 위성이 하늘에 뗬소》, 혼성6중 창 《친근한 우리의 최고사령판》, 김영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바얀2중주와 남성중창 《전선행 렬차》, 관현악과 합창《혁명군 의 노래》, 남성5중창 《내 심장의 목소리》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희세의 천출명장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 궤도를 따라 승승장구하여온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영광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훈련 또 훈련》등은 공연분위 혁명업적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장군님의 령도는 이 땅우에 강성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질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음을 절감 하면서 관람자들은 대를 이어 최고사령관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행운을 가슴깊이 간직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백승의 선군령도사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지는 무대에 울려퍼진 녀성 6중창《간삼봉에 울린 아리랑》 았다. 은 태양의 해발로 영생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더해주었다.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래일을 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위한 오늘에 사는 인생의 참뜻을 배우며 위대한 장군님의 총쥔 전사, 제자들로 자라난 인민군 합창《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 군인들의 긍지와 랑만을 반영한 만 받든다》로 끝났다. 노래련곡 《병사의 군공메달》,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초 백이 차넘치는 공연은 판람자들 우리 조국의 높은 존엄과 병들은 나를 보고 꾀꼴새래요》, 의 절찬을 받았다.

기를 한층 돋구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 길에 힘차게 울려갈 수령결사 옹위의 노래, 신념의 노래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백두의 대업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령도사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가슴뜨겁게 새겨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적신념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맹세를 구가한 공연은

사상예술성이 높고 전투적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장군님 제일이야》를 진행하 칭송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판으로 였다. 높이 모신 23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돐에 즈음한 경축공연이 2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높이 올해를 부강조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여온 크나큰 긍지와 자랑속에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쁨이 공연장소마다에 차넘치고있었다.

수도 평양의 극장들에서 중앙 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

악단 예술인들이 음악회 《우리 서정적인 음악선률에 담아 높이

관현악 《장군님 생각》, 《매혹》, 《장군님 백마타고 달리 신다》, 《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 랐다.

출연자들은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수령결사용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 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 주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교향 의 불멸의 업적을 장중하고도 랑》,《경례를 받으시라》, 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다채로운

국립교예단 예술인들의 종합 려퍼졌다. 교예공연이 평양교예극장 무대 에 펼쳐졌다.

희열을 안겨주었다. 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 서도 경축공연들이 진행되 였다.

공연은 명절을 맞이한 근로자

공연들에서는 《정일봉의 우뢰소리》,《선군을 노래할 때》,《김정숙어머님 우리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보여주었다.

최고사령관》등의 노래들이 울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재치있는 기교와 기백넘친 영생하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 리》등의 곡목들이 무대에 올 률동으로 신비한 조화를 이룬 의 영원불멸할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였으며 또 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랑만과 한분의 희세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여 태양민족의 미래는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 휘황찬란하다는것을 확신하 였다.

공연들은 천출위인들의 필생 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선군 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어머님》, 《간삼봉에 울린 아리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천만군

해 무 짓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희세의 령장이신 위대한 높이 모신 23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 장군님 제일이야》,《우리 회가 24일 각지에서 진행되 였다.

당창건기념탑, 개선문광장을 갔다.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 《조선의 장군》의 장엄한 노래 선률이 힘차게 울려퍼지는 속에 경축무도회가 시작되였다.

과 풍과를 헤치며 우리 혁명을 절세의 애국자, 혁명의 대성인 도회장들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등의 노래

펼쳐가는 무도회참가자들의 가 슴가슴은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세계가 일찌기 청년학생들은 독창적인 선군 알지 못하는 위대한 선군혁명 혁명령도로 력사의 준엄한 시련 형도실록을 이 땅우에 새겨가신

세차게 설레이였다.

해발이 되시여 수령결사용위의 최고사령판의 예비전투부대,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신 별동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에 맞추어 춤물결을 일으켜나 혁명정신을 본받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보위하는 열정에 넘쳐 경축의 춤바다를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될 의지를 가다듬으며 춤률동을

> 이어갔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먼저 찾아요》등 흥겨운 노래선률이 울려퍼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

무도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태양의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펼쳐온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 로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과시 해나갈 열의에 넘쳐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 에서도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진 감 시 킨 위 인 칭 송 이 HI OF 2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 민족의 위대성은 그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한 인민의 미래는 그 수령의 현명성에 달려 있다.》

주체103(2014)년이 저물어간 다. 이 한해를 마감하며 사람들은 지나온 나날들을 더듬어보고있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약동 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공화 국에서는 강한 자주적힘에 대한 높 뛰는 자부심과 번영할 래일에 대한 끝없는 신심이 차넘쳤다. 하지만 남 조선에서는 비참한 굴종과 예속의 운명에 대한 한탄과 허무한 앞날에 대한 비판의 한숨소리가 높아갔 다.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로 빛나 고 인덕으로 따사로우며 선군으로

영 원 한

래

기쁨의 추억은 벌써 기쁨이 아니 나 슬픔의 추억은 의연히 슬픔이라 는 말이 있다. 3년전 남녘겨레들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장군님을 북녘인민들과 함께 피눈물 속에 영결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결 코 비관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생활의 시련속에서 굳어진 믿음만 이 그 어떤 폭풍우나 세월의 흐름에 도 끄떡하지 않고 영원한 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 의리심에 의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진리가 확증되고 선 군조선의 만년토대가 다져지는 우 리 공화국의 벅찬 현실을 목격하며 남녘인민들의 가슴속에서는 장군님 에 대한 그리움의 파도가 더더욱 세 차게 일렁이였다. 올해에 남조선의 여러 출판물들과 인터네트에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는 글들이 급격히 늘어난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과 선 군절 등 주요계기들에 남조선언론들 에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의 글들이 수없이 실 리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선군정 치를 실시하여 북을 핵, 미싸일, 위성 등을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만드시였 강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사대 와 매국, 반인민적악정이 살판치는 썩어빠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체 제》의 차이는 더더욱 뚜렷해졌다.

이해에 북과 남에 펼쳐진 판이한 현실은 절세의 위인을 모셔야 나라 가 강하고 민족의 영예가 빛나게 되 며 인민의 삶도 행복하고 풍요해진 다는 진리를 재삼 확증해주었다.

하기에 남녘겨레의 마음과 마음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전의 모습그대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또 한분의 백두산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공화국에로 끝없이 흐르고 또 흘렀 다. 너무나도 당연한 민심의 흐름이 였고 력사의 필연이였다.

양 의 력 사

다. 》, 《생전에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는 굽이굽이 감도는 가파로운 벼랑길 을 올라가 최전방감시소를 자주 시찰 하군 하시였다.》등 장군님의 선군 업적을 회교하는 각계층의 가슴뜨거운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싸우면 언제나 이긴다는 태연자약 하고 여유작작한 배짱과 기상으로 적 대세력들을 제압하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신 강철의 령장, 이것이 남조선인민들 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이다.

남조선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 등 여러 계기들에 진행된 경축행사소식들을 일정별로 따라가면 서 신속히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이 행사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됨으로 써 장군님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 고 무궁토록 이어질것이라는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통일뉴스》, 《민중의 소리》 등 수 많은 인터네트출판물들에는 이민위 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사랑 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장정을 찬양하 는 글들이 차고넘치였다.

당황한 괴뢰패당은 《싸이버세상은 종북바다》라고 아우성쳤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에까지 깊은

관심을 보여준 김정일국방위원장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 》, 《김정일국방위원장님 은 영생하신다.》고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뜻을 표시한 사람들이 어찌 범민런 남측본부

성원들뿐이라. 선 군 은

이해에도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연 다. 험악한 상황은 조선반도의 정세 기류를 급속히 대결에로 몰아갔다.

하지만 결말은 어떻게 되였는가. 라소니꼴이 되고말았다.

힘을 동반하지 않는 정의는 무효 이며 정의를 동반하지 않는 힘은 횡 포라는 말이 있다.

시켜주시고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더더욱 백배천배로 다져주시는 불패 의 선군총대는 원쑤들의 무모한 기 도를 산산이 깨여버리였다.

올해 4월초 온 남조선땅은 커다 란 충격으로 뒤흔들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판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것 이다. 남조선언론들은 즉시 이 충격 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하였다.

선의 주요언론들은 결의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 사진을 모시고 《김정은제 1 위원장 총대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을 표명》등의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는 칭송과 간절한 그리움속에 이해의 날과 달들이 흘러갔다. 그 나날들에 남녘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따라 온갖 시 련과 난관을 뚫고 기어이 통일조국을 안아오고야말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뜻깊

은 태양절에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

1차 비행사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

진보와 보수 할것없이 남조선 각계

가 깜짝 놀랐다. 당시로 말하면 남조

선미국련합공중훈련으로 남쪽상공에

숱한 공중비적들이 쉬파리뗴처럼 덮

여있던 시기였다. 바로 이런 때에 공

화국의 령공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

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대

회를 진행하도록 하신 원수님의 무비

의 배짱과 담력, 기개에 누군들 경탄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전례없는

조치, 상상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 《김정은제 1 위원장은

최고사령관으로서의 배짱과 담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 》. 《미국도 북의

최고사령관에 대하여 강력하고 공격

적이며 전략적으로 능숙하다고 평하

멸적의 폭음이 금시라도 서울상공에

서 울리는듯 하여 분별없이 날뛰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승절을 하

루 앞두고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

타격부대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직접

지도해주신것도 남조선 각계에 커다

란 파문을 일으켰다. 《북이 이례적

으로 로케트발사의 목표가 남조선강

점 미군이라는것을 밝혔다. 》, 《로케

트발사는 미국이 고고도미싸일방위

체계를 남조선에 배치하는데 대한 경

특히 언론들은 금수산태양궁전광

장에서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

대회가 진행된데 대해 보도하면서

《북이 미국의 덜미를 잡아 끌고가는

형세》. 《북이 미국에 정치적항복과

고이다.》등의 보도들이 그칠새없이

호전광들은 금시 자라목이 되였다.

한편 백두의 칼바람소리와 같은

고있다. 》고 저저마다 보도하였다.

과 경악을 금치 않을수 있겠는가.

식이 전파를 타고 울려퍼진것이다.

련이어 남조선을 덮치였다.

평화이고 통일

평온하지 않았다. 미제와 남조선괴 뢰들은 끊임없는 북침전쟁소동과 오 뉴월 개꿈같은 체제통일망상으로도 성차지 않아 온통 날조투성이인 《인 전》모략놀음까지 벌려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원쑤들은 감히 우리 인민 의 신념의 기둥을 허물어보려고 공 화국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 며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하여 온 한해 어느 한시도 북침전쟁연습의 포성이 멎은적 없었고 대결광신자들 의 터무니없는 악담이 그칠줄 몰랐

강철의 선군령장의 우뢰같은 불호령에 무모한 헛손질을 하며 미 쳐날뛰던 미제와 괴뢰들은 불맞은 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강화발전

《런합뉴스》, 《KBS》를 비롯한 남조

각계의 파문은 물론 컸다. 선군이 몰아온 충격적인 해일은 군사적항복중 량자택일을 요구하며 쥐락퍼락하는 형국》, 《렬강들을 놀래 우는 큰 사변들을 련이어 엮어가시 는 북최고지도자의 정치적지도력과 결단성은 참으로 대단하다. 》고 탄복 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의 정세평론가들도 최고지도자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수시로 군사훈련장을 찾아 훈련과정 을 직접 지도하는 사례는 세계 그 어 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하면 서 《김정은제 1 위원장의 군지도활동 에 미군지휘부가 충격을 느끼지 않 을수 없다. 》고 하였다. 괴뢰패당까 지도 《조선반도의 운명은 북지도자의 주머니속에 들어가있는셈이다.》, 《김정은최고사령판이 미국을 상대로 강력히 맞서고있다. 》고 하면서 불안 과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각계층 인민들은 올해에 들어와 런속 취해진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자위적조치들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 엄을 롱락하려는 세력들을 용납치

올해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펼쳐 진 판이한 현실이 사람들을 놀래웠 다. 남녘에서는 자본중시, 인간생명 경시 등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으 로 수백명의 어린 목숨들이 어이없 게 숨진 《세월》호대참사가 일어났 다.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 북녘에 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석밑에 송 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성 대히 진행되였다. 이처럼 극적인 대 조를 이루는 광경은 온 한해동안 끊 임없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와 자애로운 손길에 의 하여 우리 공화국에서 날에날마다 펼 쳐지는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대화 폭은 랭혈동물같은 괴뢰집권층에 대 한 울분으로 치떨던 남조선인민들속 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 들은 《김정은제 1 위원장의 어린이들 에 대한 사랑은 선대지도자들을 련상 케 하고있다. 》, 《어린이들을 껴안고 쓰다듬는 북지도자의 어린이사랑은 진정성이 엿보이고 자연스럽다.》, 《가는 곳마다에서 김정은제 1 위원장 의 후대사랑이 한껏 부각되고있다.》 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 동자합숙건설을 발기하시고 완공되 였을 때에는 5.1절경축 로동자연

않으려는 결심이 확고하다는것을 보 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면서 민 족을 해치려고 불뭉치를 들고 덤벼 드는 침략자들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겨레에게는 자주와 평화를 가져다주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격찬하였다.

선군의 위력에 의해 미국과 남조 선보수패당의 반공화국책동이 걸음 마다 분쇄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을 목 격하면서 남녘겨레들은 민족운명의 위대한 수호자,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불패의 선군정치가 있어 머지않은 앞날에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이 영 영 사라지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 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바로 이것이 올해의 격동적인 현실을 체험하면서 남녘인민들의 가슴속에 더더욱 굳어진 확신이며 락관이다.

신심속에 그려보는 민족번영의 래일

회를 차려주시면서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근로자들 을 축하해주도록 하신것은 남쪽에서 는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였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도 높아갔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 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과학기술발전 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계시는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제 1 위원장이 내세우 고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과학기술이 다. 》, 《북이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 해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 《북의 과 학중시정책에 따라 과학자는 북청소 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으로 되 고있다.》등으로 광범히 보도하였 다.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의 교육자, 과학자들에게 궁궐같은 살림집을 안겨주시는 등 지식인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극진한 어버이사랑을 전하는 소식들도 각계에 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남조선언론들은 《북의 경제장성률 이 해마다 상승하고있다. », 《초강도 의 유엔제재를 받고있는 북의 경제 가 예상을 깨고 호전된것으로 나타 났다. 》. 《전반적경제분야들에서 생

산과 경영이 활성화되고있다.》, 《김정은시대는 새로운 경제개발시대 로 될것이다. 》고 하면서 우리 공화 국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거두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을 보도하였다.

주체적인 체육강국건설의 활로를 펼쳐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칭송 의 열기도 날로 뜨거워졌다.

남조선 각계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 체육경기들을 직접 보아주시며 체육인들을 내세워주심으로써 사회 에 체육열풍이 일어나고 금메달도 늘 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제 1 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축구, 력기를 비 롯한 여러 종목 경기들에 출전한 우 리 선수들이 우승의 영예를 펼친데 대해 《북체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 는 전적으로 김정은제 1 위원장의 령도력의 결과》이며 《위인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무명의 선수도 세계패권 자로 떠오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다. 》고 한결같이 평하였다.

련이어 펼쳐지는 놀라운 현실앞 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북은 정녕 《신비의 나라》라고밖에 달리는 표 현할수 없다고 격찬하였으며 보수 언론들까지도 《최근 북에서는 김정은시대를 〈젊어지는 시대〉라고 하면서 앞으로 조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가까운 장래에 문명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것이라는 이야기 들이 울려나오고있다. ». 《전사회에 혁신과 창조, 애국으로 젊음이 넘치 게 된것은 김정은제 1 위원장의 적극 적인 현지시찰의 결과이다. 》라고 분 석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인민대중을 력사 의 주인으로, 자주적인 존재로 내세 워주고 인간다운 삶을 마음껏 향유 할수 있게 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우 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인권》이 니 뭐니 하고 떠드는것처럼 무식한 것은 없을것이라고, 그 무슨 《급변사 태》를 기대하는것은 어리석은 개꿈 에 불과한것이라고 조소를 금치 못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강성국가건설과 민족번영의 대통로가 활짝 열리고있는 우리 공화 국의 격동적인 현실은 남녘겨레로 하 여금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였다.

허 영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남 조 선 적 십 자 사

통지문을 보 내 였 다

우리의 해당 기관이 지난 살도록 해줄것을 간절히 요청 11월말 우리측 지역에 불법입국 하였다. 한 남조선주민 마상호(남자

52살)를 단속하였다. 마상호는 불법입국한 범죄사 실을 인정하면서 남쪽에서 자 기를 정신병자로만 치부하며 자유를 구속하므로 공화국에서

우리는 인도주의적견지에서 주민을 오는 12월 26일 그를 설득하여 부모들이 살고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인도할 있는 곳에 돌려보내기로 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

상해협조기구성원국 정부수반리사회 회의 진행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확

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회의참가자들은 상해협조기

구의 발전은행과 발전기금창설

회의에서는 성원국들사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군사 대표단 단장들속에서도 뜨겁게 분출되였다.

꾸바혁명무력 군사대표단 단 장 호아낀 낀따스 쏠라는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을 지니신 위대한분이시다.

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김정일동지는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선군 정치를 펼치시여 제국주의련합 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

거 연 히 솟아오른

여러 나라 군사대표단 단장들이 칭송

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회주의의 운명을 지키고 인류 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 자주위업수행을 추동하는 가장 정당하 정치반신이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난관을 이겨내며 모든 분야에서 커다 란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 주의 성새로 거연히 솟아있다. 우간다고위군사대표단 단장

는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강군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 사 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하 력하였다.

련사는 갓련하 구련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 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조선이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은 것은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한 데 있다. 조선인민군은 현대적

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부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 오동고 제제는 김정일동지께서 갖춘 불패의 강군으로 위용떨치 고있다. 일당백의 혁명무력과 자립적국방공업, 전인민적, 전 국가적방위체계를 가지고있기 에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다.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 올려세워주신 김정일동지께 조 선의 군대와 인민은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있다.

군력강화에 쌓으신 김정일동지 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모잠비끄군사대표단 단장 아 고스띠뉴 쌀바도르 몬들라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조선 에 선군이라는 만능의 보검이 있 기때문이다. 불세출의 령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선군 정치로 조선을 군사강국의 지위 에 올려세우시고 사회주의를 굳 건히 수호하시였다.

희세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여 조선은 승리와 영광의

력사만을 창조할수 있었다. 진보적인류는 특출한 정치실 력과 령도력으로 주체조선의 존 엄과 위용을 만방에 빛내이신 김정일동지를 희세의 천출명장

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파 打 스 탄 의 사

흐스딴의 아스따나에서 진행 되였다. 회의에는 기구성원국 정부수반들과 대표들이 참가

반리사회 회의가 15일 까자

상해협조기구성원국 정부수

연 자 - 인도네시아의 북부말루꾸

하였다.

분출하였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화산재가 2 000m 높이까지 뿜어올랐 다. 화산분출로 9명이 부상당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화구로부터 3. 5km범위안의 지역이 소개지

证 해

토의되였다.

대로 선포되였다고 한다. 주에서 18일 가말라마화산이 - 일본의 북부와 중부지역에 서 최근 폭설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7일현재 사망자수는 10명으로 늘어나고 30여명이

> 부상당하였다. 또한 도로들에 많은 눈이 쌓 여 교통이 마비되고 500건이

빈부차이 심화 카나다에서 빈부차이가 심화

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우리

측 지역에 불법입국한 남조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

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

에 따르는 앞으로의 사업과 다

음해 기구예산문제에 대해 합

회의끝에 공동콤뮤니케와

일련의 협조문건들이 채택되

의하였다.

였다.

【조선중앙통신】

되고있다. 16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전 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부유층의 20%가 전체 사 회적부의 67.4%를 독차지하 고있는 반면에 빈곤층의 20% 는 아무것도 없이 극심한 생활 난에 허덕이고있다고 한다.

발 광적 인 침 략전쟁준비책동 증 강

군 비 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준비에 탕진 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최근 미국회 상원이 군사비지출법안을 통과시켰 다. 이에 따라 2015회계년도 군사 비로 5 850억US\$가 지출되게 된 다고 한다. 한편 미국이 침략전쟁준 비를 다그치기 위해 새로운 레이자 무기개발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

있다. 미해군연구소는 10일 지난 9

일어나고있다. 최근 몇달사이를 놓

고보아도 그렇다. 지난 7월 17일

뉴욕에서 흑인 에리크 가너를 목

졸라죽인 사건, 지난 8월 9일

퍼구슨시에서 흑인청년 마이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

회질서를 보장한다는 경찰이 오

범행을 두고 《정당방위》라느

니, 《과실》이라느니 뭐니 하며

저마다 무죄를 선포하고있다.

한두번도 아니고 빈번히 빚어지

는 경찰들에 의한 살인사건모두

가 이렇게 정당한것이라니 도대

미국의 법정에서 흑백을 전도

하는 파렴치한 판결놀음이 이렇

듯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이 사건들이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멸시

들이기때문이다.

체 납득이 되는 처사인가.

🕽 브라운을 총으로 쏴죽인 사건,

미국에서 경

찰에 의한 살인

사건이 런이어

월부터 11월까지 페르샤만에 있는 미국이 막대한 군사비를 다른 나 미해군 수륙량용수송도크함 《폰스》 호에서 일명 《LaWS》라는 레이자무 기체계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였다 고 밝혔다. 이 레이자무기체계는 무 인기와 직승기로부터 소형순찰정에 이르기까지의 목표들을 소멸하는데 리용될수 있다고 한다.

해군무력 강화 군무력강화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

달리고있다. 최근 미국방성은 반항 공레이다와 전자전체계 그리고 개 량된 수중탐지기와 어뢰방위 및 장 갑보호기능을 갖춘 새로운 소형해 상전투함선을 건조할데 대한 해군 의 계획이 승인되였다고 밝혔다. 이 에 따라 전투함선건조에 거액의 자 금이 탕진되게 된다. 이 결정은 설 계와 건조, 예산초과문제를 비롯하 여 연안전투함선계획의 비용과 실 행가능성을 둘러싸고 비난이 계속 미국이 침략전쟁도발을 노린 해 되고있는 가운데 내려졌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01

상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다. ^^^^^^^^^ 안팎으로 저주와 규닫을 받고있는 미국

-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 알렉싼드르 루까쉐비치가 17일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 전개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로씨야로부터 의 《위협》에 대해 운운하며 2015년에 로므니아령토에 미 싸일방위체계요소들인 요격미 싸일들을 전개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데 대해 언 급하였다.

그는 유럽의 동남부지역을 군사화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지역과 유럽의 안전과 안정에 배치된다고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의 제재책동을

◎ 반대하여 시위

- 알바성원국들이 14일 수 뇌자회의에서 베네수엘라와 꾸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정책 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 다. 성명은 베네수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한 미국회의

처사를 비난하고 이 나라에 대 한 알바의 지지와 련대성을 표 시하였다. 성명은 또한 미국이 반꾸바봉쇄조치를 철회하고 국가전복기도를 즉시 중지하 며 꾸바를 《테로지원국》명단에 서 삭제할것을 요구하였다.

-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10일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미국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고 🕻 지난 11월 22일 오하이오주 클 문행위가 폭로된것과 관련하 ₹ 리블랜드시에서 12살 난 흑인소 여 그는 이것은 미국안전기관 🕻 년이 총에 맞아죽은 사건… 들의 호전적이며 극단적인 성 격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 고 까밝혔다. 가장 우려되는것 ₹ 히려 살인에 날뛰고있으니 참으 은 이러한 고문행위들이 여전 🕻 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히 미국안전기관들에 의해 감 ₹ 더우기 경악을 자아내는것은 무 행되고있는것이며 미행정부가 ₹ 고한 사람들을 죽인 범죄자들이 그러한 행위들의 재발방지에 ₹ 아무러한 법적처분도 받지 않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있는것 🕻 것이다. 법기관들은 경찰들의

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운 일이다. 린치왕국으로 악 명높은 미국의 력사가 그것을 톡톡히 보여주고있다.

리치는 미국고유의 대명사라 고 말할수 있다. 린치라는 말은 미국의 농장주이며 극단한 인종 주의자인 챨즈 린치란자의 이름 에서 유래되였다. 흑인들을 자 기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말하 는 짐승으로 여긴 이자는 수많 은 흑인들의 피땀을 짜내면서 가혹하게 학대하였을뿐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 방법으로 무참히 죽이군 하였 다. 흑인들을 목매달아죽이고 나무단우에서 불태워죽였는가 하면 총으로 쏴죽이고 칼로 도 륙내여 죽였으며 기계안에 집어 넣어 온몸의 뼈를 부스러뜨려 고통속에서 죽이는 등 린치의 만행은 그 포악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짐승도 낮을 붉힐 정도 였다. 이때부터 린치란자의 이 름은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학대와 살인행위를 통칭하는 용

어로 불리워졌다. 흑인들에 대한 챨즈 린치의 만행이 이처럼 혹심한 인권유린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사 회에서는 그것이 공공연히 묵인 되였다. 1947년 5월 사우스캐 롤라이나주재판소는 린치는 범 죄가 아니라고까지 규정하였다. 이것이 미국의 형성과 함께 사 회의 악성종양으로 뿌리내린 인 종주의에 더욱 키질하는것으로 된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 국의 어디서나 흑인들은 《창문 으로 백인을 보았다. », 《백인과 말다툼을 하였다.》,《거만하

다. 》, 《린치를 당한 흑인을 동정

하였다. 》, 《백인과 악수를 하였 다. 》, 《백인아이들과 같이 놀았 다. 》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구실 밑에 별의별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았다. 3K단을 비롯한 극단적 인 인종주의단체들과 전문테로 살인업체들은 흑인잡이에 미쳐 날뛰였다. 공개적인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1882년부터 1962 년까지 수많은 흑인들이 3K단 의 린치에 의하여 학살되였다고 한다. 미사법성은 급속히 확대되 는 인종주의단체들에 의해 감행 된 범죄가 1998년에만도 총 살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린치를 조장시키는것도. 린치의 적극적 인 비호자도 다름아닌 미당국이 라는데 있다.

다고 자인하였다.

인건수의 반수이상을 차지하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였던 토 마스 제퍼슨은 《흑인들은 백인들 보다 렬등하다. 》고 줴쳐댔다.

미집권층의 인종주의적성격 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실레가 있 다. 언제인가 미국에서 한 흑인 운동가가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적이 있었다. 그의 석방을 요구 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국대통령 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민주주의수호의 기

수》로 자처하던 집권자는 당신 들에게 흑인석방을 청원할 자유 가 있다면 나에게는 그것을 거 부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뇌 까렸다. 《자유의 녀신상》밑에서 벌어

고 미국의 저명한 작가 마크 트 웨인은 《미국은 린치의 합중국》 이라고 혹평하였다. 세기는 바뀌고 시대는 변하였 으나 미국의 극심한 인종주의정 책에서는 자그마한 변화도 없 다.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된 후 인종차별행위는 줄어드는

지는 극심한 인종차별실태를 두

게 아니라 더욱 우심해지고있 다. 하긴 대통령이 대독점재벌들 의 꼭두각시노릇을 하는 썩고 병 든 사회제도에서 흑인이 대통령 이 된다고 하여 어떻게 인종차 별이 없어질수 있겠는가. 당국자의 지령에 따라 인종주

의를 반대하여 평화적시위에 떨 쳐나선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흑인청년 마이클 브 라운을 총으로 쏴죽인 퍼구슨시 의 백인경찰 윌슨은 자기의 범 죄에 대해 《량심상의 가책은 없 다. 》고 뇌까렸다. 죄없는 사람 을 죽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 끼지 않는 경찰, 깽단보다 살인 을 더 많이 하고서도 국가적보 호를 받는 미국경찰들이야말로 린치왕국에서 발급해주는 《살인 허가증》을 받은 인간살륙무리라 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미국 에서는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을 죽일수도 있고 때릴수도 있다. 》는 살인적구호가 공공연

유

적

군대까지 들이밀

히 나돌고있다. 인디안들의 해골더미우에서 독버섯처럼 솟아난 미국. 력대 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로 살쪄온 인종주 의국가의 이러한 《살인허가 증》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의 피땀을 짜내고 무고한 목 숨을 앗아가겠는가는 누구도 알수 없다.

흑인들에 대한《살인허가증》 이 통용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 모지, 인권유린의 왕초-미국 이 존재하는 한 인종주의적인 인권유린책동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다.

김 국 철